

하늘도 법당에도 무량보주 '가득'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매화점(梅花點)→무량보주(無量寶珠) ㉔



'매화점(梅花點)'이란 용어는 단청 관련 모든 책에 예외 없이 나온다. 실제로 사찰 법당들은 물론,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조선시대 궁궐의 크고 작은 건물에 그 조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그 조형에 시선이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왜 그 용어가 율치 않은가? 율치 않은 이름을 가지고 보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귀면은 인터넷에서 한자로 전환하면 금방 '鬼面'이 떠서 편리하지만, 용면은 전환할 수 없어 용(龍)과 면(面)을 따로따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므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보주(寶珠)'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터넷에서 단 번에 한자로 전환할 수 없다. 매화점 역시 자판 한 터치에 금방 뜬다. 인터넷에서는 '가장 좋은 용어는 따지 않고, 가장 그른 용어는 뜬다.'

매화점도 마찬가지다. 단청 전문가들의 모든 책에 매화점이란 용어가 있으나 설명이 없으며 더 나아가 법당이나 궁궐 건축에 왜 그리도 많은지 밝히지 않고 있다. 어쩌면 건축 곳곳에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조형들이 그리도 많은가! 그토록 많다면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매화점이라는 것은 매화꽃을 닮아서 붙인 이름일 것이다. 매화-난-국화-대나무 등, 사군자(四君子)를 먹을 문혀서 붓으로 쳐본 사람은 금방 알 것이다. 언뜻 보면 매화를 연상하지만 매화는 결로 아니다. 이미 말했거니와 근대 이전의 조형미술에는 현실에서 보는 조형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외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조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운'을 표현한 것이어서 장인 이외의 사람들은 그 보이도록 나타낸 조형들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사람들이 매화점이라고 부르는 조형은 '우주의 기운'을 표현한 것이다. 왜 그런지 증명해 나갈 것이다. 무한한 우주의 상징을 최대한으로 압축한 것이어서 인류는 그 조형의 구성 원리와 상징구조를 읽어내어 문자언어로 기록하지 않았다. 장인들은 충분히 알고 그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본 비슷한 사물을 보고 용어를 만들었으므로 매화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영원히 매몰시켜 왔던 것이다. 단청 책들에 나오는 매화점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인용하여 읽어보기로 하자.

'부리초'란 부재의 끝 마구리면에 장식되는 문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연이나 서까래, 보, 도리, 평방, 창방, 사래, 추녀, 첨차의 부리가 모두 해당된다. 각 부리의 중심에는 간단한 단독 문양을 장식한다... 부리초 문양으로는 먹 바탕에 백색 매화점이나 백색 태평화 등...이 사용된다. 매화점은 백색으로 중심의 꽃 심에 해당하는 원을 찍고, 다시 그 둘레에 원을 5~6개 찍어 완성한다. 태평화는 천하가 태평해 만사가 평안해지기를 기원하는 도안이다... (한국의 단청, 광동해 지음, p. 283)

태평화(太平花)도 한자로 전환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 매화점과 태평화는 조형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지닌 것인데 이 글에서는 매화점만 다루기로 한다. 매화점의 정체를 밝혀보면, 한 마디로 '무량보주(無量寶珠)'를 말한다. 즉 중앙의 비교적 큰 보주에서 사방으로

여러 개의 작은 보주가 생겨나는 조형으로 그 조형의 역사는 유구하다.(그림 ①)

단청의 무량보주를 자세히 보면 중앙의 보주에서 주변의 보주에 모두 가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중앙의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가는 줄이 있는 조형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하다. 그런 조형이 경우에 따라 줄이 없어진다. 우선 부석사 패불의 하늘에서 그런 조형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②)

원래 하늘에는 무량한 보주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수 많은 보주들로 가득 차게 하면 혼란스러우므로 중앙에 보주를 두고 주변에 보주를 두르는 단위의 조형을 만들어 검은 하늘에 가득 배치한다. 밤하늘이 아니다. 옛 사람들은 하늘이 깊어서 현(玄)이라 표현했으므로 검게 칠한 것이 밤하늘이 아니다. '별 같이 보주들이 가득 찬 하늘'이다. 불화의 이런 조형을 보고 매화점이라 부를 것인가?

11월 12일, 통도사 적멸보궁 조사하러 가면서 관음전(觀音殿)의 부연이나 서까래, 보, 도리, 평방, 창방, 사래, 추녀, 첨차 등 그 수많은 마구리는 물론 일체 부재뿐만 아니라, 지붕의 각종 기와에서 우리가 매화점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무량보주'라고 고쳐야만 하는 조형들이 명료하게 눈에 들어왔다. 무한한 우주의 압축된 법당전체에서 무량보주가 폭발하듯 발산하는 장엄한 드라마를 보았다.(그림 ③)

보주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보주라도 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므로 무량보주라고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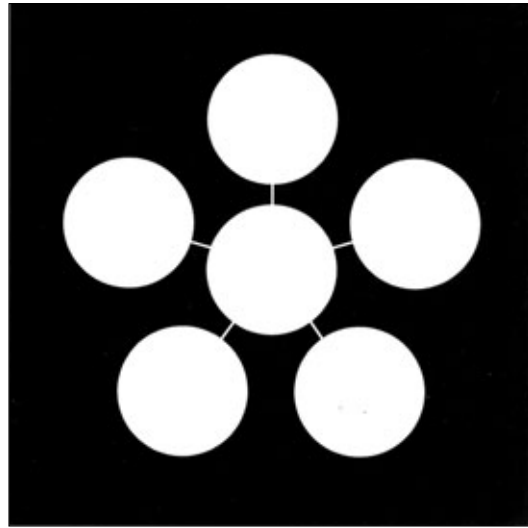


그림 ① 단청 도안



그림 ② 부석사패불의 하늘의 무량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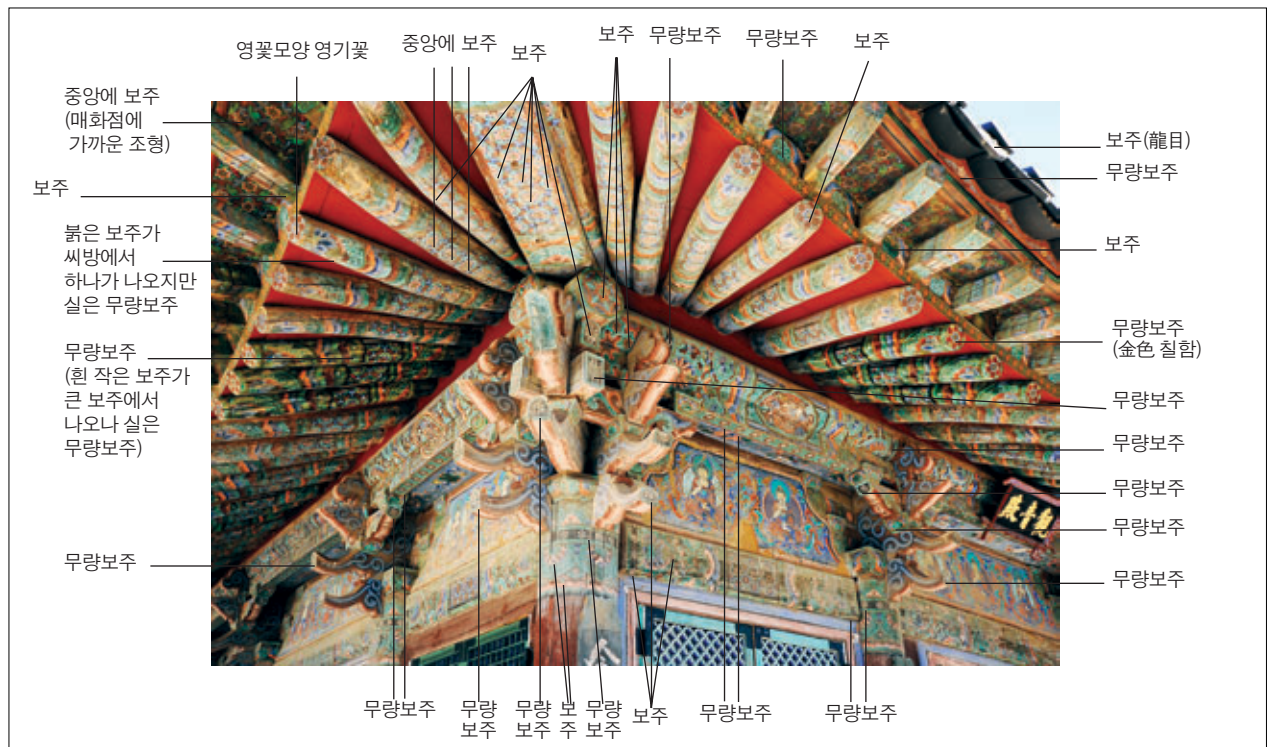


그림 ③ 통도사 관음전의 각종 부재에서 발산하는 보주들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장

藥 이 되는 사찰음식

팔죽과 함께 먹는 겨울 별미 '동치미'



양배추 김치

△재료(4인 기준)

- 양배추 1/2통, 무 100g, 미나리 30g, 청고추 2개, 홍고추 1개,
- 국간장 1/2컵, 맛국물 2큰술, 고춧가루 1/3컵, 다진생강 1/2큰술, 소금 약간, 호박풀
- 맛국물 2/3컵, 찐단호박 100g

△만드는 법

- ① 양배추는 가운데 심을 파 내고 옆은 소금물에 1시간 가량 절여 행취 물기를 뺀다.
- ② 무, 청홍고추는 채썰고 미나리는 4cm 정도의 길이로 썬다.
- ③ 맛국물에 찐 단호박을 넣고 풀죽을

쑤는다.

- ④ 모든 재료 골고루 잘 섞어 김치 양념을 만들어 양배추 사이사이에 채운다.

동치미

△재료(4인 기준)

- 동치미 무 1단(2kg), 소금 2/3컵
- 배 1개, 청각 20g, 삭힌 고추 10개, 생강 30g,
- 물 2ml, 소금 3큰술

△만드는 법

- ① 동치미 무는 깨끗이 씻어 소금에 버무려 2~3일 정도 실온에서 절인다.
- ② 향아리에 배, 청각, 삭힌 고추, 생강을 주머니에 넣어 담은 후 절인 동치미 무를



넣는다.

- ③ 물에 소금을 넣어 잘 푼 다음 향아리에 부어 무가 떠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것으로 눌러 익힌다.

위장병에 좋은 양배추 김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겨울을 나기 위한 김장을 하게 된다. 집집마다 집집마다 각각각색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많은 김치를 담그게 되는데 그레도 겨울이면 꼭 담그는 것 중에 하나가 동치미이다.

동치미는 겨우내 먹기 보다는 11월 경에 담아서 동지 전후로 팔죽과 함께 먹게 될 때 그 맛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동치미를 담글 때는 무의 겉 껍질을 벗기지 말고 잔털을 정리하는 정도로 해야 무가 무르지 않고 아삭하게 되며 절일 때도 일반 김치 담그는 것과는 달리 소금에 무를 굴러 2~3일 넉넉히 절여야 간이 알맞게 배게 된다.

잘 절여진 무에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배와 청각 등의 부재료를 큼직하게 썰어 잘 숙성시킨 동치미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좋은 천연 소화제라고도 할 수 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정상화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성인병 및 항암에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충치를 예방하고 숙취해소와 소화 작용에 좋으며 농약이나 연탄가스 등의 중독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

양배추김치는 최근 들어 많이 담그는 김치 중의 하나다. 양배추의 비타민 K와 U는 위장병에 좋으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매운 김치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 좋은 김치다.

양배추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물에 절이는 시간도 2시간 정도로 살짝 절이고 고춧가루의 양도 적게 넣는 것이 포인트이다. 또한 찹쌀가루로 풀을 쑤는 대신 단호박이나 늙은 호박을 찌거나 삶은 후 맛 국물에 풀을 쑤게 되면 감칠맛 나고 부드러운 김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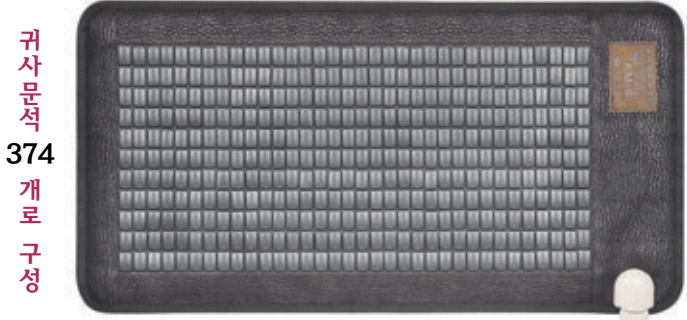
김은연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 426호, 품목허가 제 09-651인 의료기기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A형 50cm × 100cm | B형 65cm × 165cm

귀사문석 374개 구성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침시에는 온열 매트로!!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빙의 퇴마사레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상심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장사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숙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활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기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 루 자숙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숙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숙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숙염 230g 78,500원
핵용 알갱이 자숙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숙염 구매시 **사은품 (핵대용 알갱이 자숙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